

주변적 위치에서 살아남기:

산업화 시기 문화부 기자들의 소외와 정체성 관리

최이숙

(서울대학교 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1. 들어가며

이 글은 산업화 시기 여성언론인들이 성별화된 노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화 시기 여성언론인들의 대다수를 이룬 문화부 및 여성가정란 담당 기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뉴스 생산노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일련의 사회변화는 여성들이 언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Chamber, Steiner & Fleming, 2004),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1961년 서울시내 통틀어 30여명에 불과했던 여성기자의 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대졸여성의 수적 증가와 함께, 1969년에는 75명(정영애, 1969), 1974년에는 156명, 그리고 1980년에는 18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언론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는 80년대 6.5%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지만¹⁾, 이들의 활동 영역은 문화부(부녀부 포함)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자매지인 주간부, 교정부, 조사부등 뉴스생산영역 중 주변 부서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수습에서 고위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최이숙, 2009).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서 배치상의 성별 분할은 언론계의 여성인력의 주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았다. 여성기자의 제한된 활동영역을 정당화했던 조직내의 정책 및 관행 그리고 편향된 고정관념에 대해 당시 여성기자들은 60년대 중반부터 여기자 클럽 세미나 및 『여성저널』을 비롯한 공적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비판하였다. 그리고 남성들만의 “견고한 성”(신연숙, 1978.4. 17)의 빗장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여성언론인의 활동영역상의 제약은 남성중심적인 뉴스생산노동 또는 가부장적 사회풍토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화라는 조건 속에서 문화면 노동은 어떠한 특색을 지녔기에 이러한 부서배치의 관행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세밀하게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각 부서마다 성격이 각기 너무 달라 부서를 옮기면 꼭 직장을 옮긴 것 같은”(김순주, 1978, 23쪽) 뉴스생산노동의 특색을 고려할 때, 문화면 노동의 성격과 당시 젠더질서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여성적 영역의 등장과 확대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언론계 진출 및 고위직으로 나가는 발판²⁾을 마련했다

1) “한국의 언론인구” (『신문평론』 1974년 11월, 1980년 4월, 1984년 2월, 1986년 3월, 1987년 3월 참조)

2)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여성언론인의 부장이상 고위직 진출은 대개의 경우, 문화부 기자였다.

는 점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산업화 시기 문화부 노동이 지닌 특색이 무엇이며 여성언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어떻게 창출하였는가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뉴스생산노동의 가장 커다란 특색인 시공간,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해당 노동의 특색과 여성언론인의 노동경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여성언론인의 생존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은 이들의 정체성 관리 양상에 주목한다. 부르니와 게라디(Bruni & Gherardi, 2002)에 의하면, 여성언론인과 같은 남성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와 관계된 문제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구분을 비롯하여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넘나드는 “이원적 존재(double presence)”로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조절해야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Bruni & Gherardi, 2002). 이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위치를 이해하고 대처해간다는 점에서, 여성언론인의 정체성의 조절 및 관리과정은 남성중심적 조직 내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순과 모호성을 극복"(Alvesson, Ashcraft & Thomas, 2008)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 시기 여성언론인들은 소수였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공간도 모임도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생산노동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젠더 질서에 대한 여성언론인들의 대응은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일시적 젠더 관계의 역전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은 한사람의 여성 기자로 이들이 겪었던 모순과 갈등의 극복과정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공통성을 발견코자 한다.

산업화 시기 여성언론인의 노동조건과 경험을 복원하기 위해 이 글은 먼저 여기자 클럽을 비롯한 언론유관단체에서 발행한 기관지에 게재된 세미나 자료 및 각종 칼럼, 수필등의 문헌자료와 여성기자들의 구술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³⁾ 그들이 ‘이야기한 사건’을 바탕으로

3) 인터뷰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해당 시기 문화부 뿐만 아니라, 교정부·외신부등의 내근직, 정치부, 사회부, 체육부등의 스트레이트 부서 출신 기자들을 포함한 13인의 전현직 여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각 시기별 문화부에서 활약했던 이창숙, 윤호미, 김영신, 김선주, 조남진, 신연숙, 홍은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각 구술자들의 경력과 인터뷰 횟수는 아래와 같다

이름 (횟수)	입사 연도	경력이동 현황
이창숙 (3회)	1963	대한일보 부녀부→한국 주간여성→한국 문화부→한국 주간여성, 한국일보 노조위원장(1975). 現 불교문화연구원 위원
김영신 (2회)	1965	조선 문화부→68년 퇴직, 75년 합동통신 방송지방부→연합통신(이하 연합) 편집2부→연합 문화부→연합 문화부 차장→연합 생활부장, 문화부장, 뉴스속보부장,조사부장→연합 편집부국장 논설위원→연합 출판국장 직대→출판국 고문
윤호미 (3회)	1965	중앙, 편집부→중앙 문화부→문화부차장→중앙퇴사 후 Free lancer(3년)→조선 문화부차장→조선 파리티파원→조선 문화부장→조선 편집위원→조선 생활과학부장→조선 편집부국장겸 생활부장→조선 편집 부국장→조선 편집부국장 겸 생활부장→조선 문화부 부국장→월간 Feel 편집장(부국장대우).
김선주	1969	조선일보 문화부→75년 해직→88년 한겨레 여론매체부→한겨레 논설위원→출판국장→생활환경부 편집위원→문화부 편집위원→이사대우 출판국장→논설위원(이사대우)→논설위원(국장대우)→논설주간(이사대우)
조남진	1971	서울 교정부→서울 편집 2부→서울 문화부→서울 과학부 차장→서울 과학부 부장
홍은희	1977	계간 미술→월간중앙→중앙문화부→중앙 문화부 차장→편집위원→논설위원→논설

로 산업화 시기 성별화된 노동에 대한 경험의 단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여성기자의 소외와 생존전략

뉴스생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여성언론인 연구들은 그동안 뉴스생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소외와 배제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언론노동시장과 미디어 조직 구조에 존재하는 젠더 분할, 장시간의 노동 및 언론사 내 가족정책의 부재(김경희, 1998; 허명숙, 2006, Joseph, 2004, van Zoonen, 1994),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과 남성들만의 네트워크(김경희, 1998; Kim, 2006, Melin-Higgins, 2004), 술자리·농담과 같은 남성중심적 취향 문화(Chamber, Steiner & Fleming, 2004, ch. 5)등을 지적하였다. 육아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 규정된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생산규범 속에서 완전한 일원이 되지 못한 채, 취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언론인은 사회적으로 또는 동료들로부터 직업인이기보다는 먼저 ‘여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공적 담론의 생산자이자 대상으로 또 사회적 구경거리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박용규, 1997; Chamber et al., 2004, ch. 1). 특히 초창기 여성언론인들은 기자직의 거친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였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Lumsden, 1995). 이와 동시에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기자가 남성의 일원(one of the boy)인 양 거친 행동과 말을 하였을 때 이 또한 '여성성'을 탈각했다는 이유로 조롱꺼리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teiner, 1998; van Zoonen, 1994).

뉴스생산노동이 시공간의 노동이라고 했을 때, 모든 업무에서 소외기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과연 동일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업화 초기 여성들은 여성 독자를 끌기 위한 지면인 여성면 제작자로 언론계에 진출하였고(Baldasty, 1992; Chamber et al. 2004), 여성에게 적합한 부서인 해당 지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뉴스생산노동 내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적 영역으로 여성·가정란이 규정되었다면, 조직 내에서 취재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과연 ‘남성중심적’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뉴스생산노동 내의 각 파트별 노동조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부족한 채, 성차별적 문화에 대응하는 여성언론인의 전략에 대한 논의 역시 다소 일반론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언론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역시 뉴스 생산조직 및 직업에서 규범으로 생각하는 젠더 정체성(남성성)과 사회적으로 기대된 젠더 정체성(여성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들이 젠더화된 조직에서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고 차별적인 문화에 대응해왔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성들이 대개의 경우, 자신을 여성이기 보다는 ‘기자’로 봐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Chamber et al. 2004, Joseph, 2004) 현상을 두고 몇몇 연구자들은 두가지 젠더 정

	위원실 부국장. 現 명지대 교수
--	-------------------

체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여기자들이 젠더 정체성을 지워버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여성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여성성(femininity)를 활용하는 양상들에서 알 수 있듯이(Pedelty, 1997; Lachover, 2005), 젠더화된 조직 및 뉴스 생산과정에서 여성언론인의 대응전략을 젠더정체성의 삭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젠더화된 조직에서 여성언론인이 대응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몇몇 연구자는 이를 유형화하기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을 알린 것은 멜린-히긴스와 디프-피에르(Melin-Higgins & Djerf-Pierre, 1998)이다. 이들은 남성의 일원 또는 인형의 차원에서 논의했던 틀에서 벗어나 남성문화로의 동화(incorporation/ one of the boy), 여성주의적(feminist) 대응, 그리고 퇴직(retreat) 이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멜린-히긴스와 디프-피에르의 분석유형은 이후 연구들⁴⁾에서 빈번하게 언급·활용되었으며, 여성들의 대응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가지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 3가지 유형들이 상호배제적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두 가지의 전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여성언론인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통해 ‘권력의 불평등한 상황을 조정’해가는 양상(e.g. Lachover, 2003), 그 외에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e.g. 여성성을 통해 자신의 공간을 확대하는 전략, Pedelty, 1997 참조)은 간과되어 있다. 유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멜린-히긴스와 디프-피에르(Melin-Higgins & Djerf-Pierre, 1998)의 모형은 결국 직업인으로서의 기자 정체성과 여성정체성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여성언론인들의 다양한 행동전략과 이러한 전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한계를 보인다.

드브뤼인(DeBruine, 2000, 2004; DeBruine & Ross, 2004)은 일련의 연구에서 정체성 및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여성언론인의 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 젠더 정체성, 직업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조직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간의 경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맥락 속에서는 젠더 정체성이 조직·직업 정체성에 비해 강하게 대두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직업적 정체성이 다른 두 정체성에 비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예를 들어 성희롱의 상황에선 젠더 정체성이 다른 두 정체성 보다 강하게 작동하며, 성희롱으로 인한(특히 동료들간의) 소송이 발생했을 땐 조직의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업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직업 정체성이 다른 두 정체성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각각의 정체성들이 상호배제적이기 보다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멜린-히긴스와 디프-피에르(Melin-Higgins & Djerf-Pierre, 1998)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직업적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간의 공존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정 정체성이 헤게모니적으로 작동하는 점들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드브뤼인의 주장은 맥락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조직을 사회 속에 위치

4) 예를 들어 Ross(2001, 2004a), Robinson(2004)등.

지우지 못하였다. 사회적인 구성요소로 젠더 정체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미디어 조직 내에서 여성언론인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방식이 조직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담론들-젠더, 전문직, 조직-간의 경합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언론인을 ‘뉴스생산노동에 갇힌 존재’로만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특정 정체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지형 및 다른 담론과의 연관성의 문제는 간과하였다.

산업화시기 한국 여성언론인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성이고 기자였다는 사실 외에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으며 중상층 이상의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맥락 속에 이와 같은 정체성들이 어떻게 경합하면서 성차별적인 미디어 조직·뉴스생산노동에 참여했던 여성언론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남성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 질문에 몇가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정체성을 다양한 담론이 접합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Mumby & Ashcraft, 2006)으로 바라본다. 일례로 흔히 여성들에게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승진에서의 차별 등 물적 조건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는 나이먹음을 전문직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트레더웨이(Tretheway, 2001)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에 의하면 전문직 여성들은 이를 젊음·재생산 능력 및 성적 아름다움의 상실, 친구·회사 동료들로부터의 고립(isolation)의 문제로 이를 묘사함으로써 나이먹음을 ‘쇠퇴’의 문제로 바라보는 지배적 담론을 재생산하지만 동시에 나이먹음의 혜택을 강조한 담론 또는 중년이 되면서 생성된 새로운 정체성들(e.g. 연륜)을 접합시키는 가운데 기존의 ‘늙어감’에 대한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는 조직 내의 여성행위자들이 ‘늙어감’, ‘여성’등에 대한 지배적 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닌 다층적 의미의 어떠한 한 부분을 차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만들기는 ‘나이먹음’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기 개발적 담론(entrepreneurial discourse)와 만나게 될 때 심각하게 약화된다.

트레더웨이의 이러한 연구는, 정체성의 문제가 행위자가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수많은 담론 속에 자기 위치짓기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여성언론인 연구의 화두였던 젠더 정체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통적인 공/사 구분을 뒤로한 채 직업 세계에 들어간 여성들은, 직업세계 내에서 주변적, 부차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 때때로 대립·충돌할 수 밖에 없는 직업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조절해야 한다(Bruni & Gherardi 2002).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영역 또는 남성공동체 외부에 놓여있는 자신의 위치를 간파하고 그 안에서 행동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은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다양한 지점에 자신의 위치지우면서 자신의 영역을 관리한다(Barrett, 2002, Bruni & Gherardi, 2002). 때로는 ‘불거리’이자 ‘마스코트’로 규정된 여성의 위치를 활용함으로써(Alvesson & Billing, 1992, Salminen-Karlsson, 2006 재인용), 남성적 세계 내의 자신을 다른 여성과 구별하고자 남성에 대적함으로써 직업세계 규범의 영역 속에 자신을 위치 지운다. 과정에서 주체는 다의성을 지닌 남성적 상징계와 여성적 상징계를 넘나들게 된

다(Bruni & Gherardi, 2002).

이렇게 볼 때 여성직업인들은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제약과 주체의 창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타나는 다양한 위치짓기를 시도하면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공간을 만들어간다(Kvande, 1999).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적 자원들은 동원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가정으로의 회귀와 여성의식의 고양이가 동시에 진행된 산업화 시기 여성기자들이 기자로서 살아갔는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성’이자 ‘기자’라는 점 외에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여성기자들의 다양한 위치짓기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두가지가 전제되어야한다. 당시 여성기자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주변부 노동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그리고 이들이 놓인 노동조건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해당 시기 여성기자의 사회적 배경과 부서배치와 관련된 이들의 이야기에 먼저 다가가고자 한다.

3. 대졸 중산층 여성들의 언론계 입문과 전략적 부서선택

1) 여성기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70년에 실시한 이만갑(1971)의 조사에서 논의했던 해당시기 여성언론인들은 모두 중상층 출신이었다. 편차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성별화된 한국의 교육열, 그리고 남자형제에게 집단의 가용자원을 집중시키는 가족의 생존전략(김수영, 2000)에 비추어볼 때, 이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는 구술 및 여성언론인의 자서전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세대 여성기자에 속하는 박현서와 조경희는 집안에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론을 벗어나 여성 교육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비교적 우호적인 집안에서 성장하였다(조경희, 2004; 박현서, 1967, 40~41쪽). 스포츠에 능했던 정충량은 “황해도 부자집 딸”(조경희, 2004, 59쪽)이었고, 정광모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정광모 인터뷰, 2007. 12. 1). 이는 60년대 이후 공채세대의 경우에도 비슷했던 것 같다. 부모들은 사업을 하거나 판사·변호사, 은행원과 같이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로 ‘공부를 잘하는’ 딸에게도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중상층 가족⁵⁾ 출신의 여성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남성기자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몇몇 경우,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은 시골에서 고학한 남성기자들 보다 오히려

5) 노서경과 김선주는 당시가 매우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였다. 노서경은 이후 만남에서 4·19당시 당시로서는 최상층이었던 이기붕의 집에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도 별거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녀는 “물질에 대한 것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했는데, 계급차가 존재했지만 경제적 미개발의 상황에서 계층간의 상대적 격차가 어느정도 었는지는 사실 모호하다.

풍부했다. 이는 특히 산업화 초기의 여성기자들에게 두드러졌던 것 같다. 65년 중앙일보 1기로 입사한 윤호미는 본인이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후견인으로 당대 최고의 언론인이었던 홍종인 박사를 넣었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김선주의 엄마와 이모는 신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집안은 당시 사상계의 편집진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시절에 대해 “그 당대 지식인들을 만난 적도 있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은 적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의 글을 알든 모르든 다 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도 매일 집에서 듣고 이러는 상태”였다고 회고하였다. 구술자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60년대 초에 언론계에 진출한 여성들은 당시 평균적인 대졸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남성 못지 않은 능력을 겸비했고 또 몇몇의 경우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남성보다 더 좋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산업화 시기 기자직에 진출했던 여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대학시절에서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또는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했던 사람들이다. “본래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는 않겠다”(김영신, 신연숙 인터뷰)고 생각한 이들은, 대학생 여성들이 남성이 지나가면 “땀을 쳐다보고 다니던” 분위기(이창숙 인터뷰, 2008. 1. 14)에도 불구하고, 남성동료들과의 토론이나 세상사에 대한 논쟁에 참여했다. 남성들과 “함께 계몽 활동을 다니거나”(윤호미 1차 인터뷰), “학생회의 반장으로 활동”(김영신 1차 인터뷰)하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적 영역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는 시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유신체제하에 대학시절을 보낸 신연숙과 최성자 역시 각기 반독재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과 또는 연극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냈다. 산업화 시기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대학은 높은 지위의 남성을 만날 수 있는 주된 경로(Lee, 2001)였던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여성언론인의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대학생이자 사회적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일정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 교육이 공적영역에서 남성보다 못한 존재였던 여성들에게 자신이 남성과 동등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였던 점(Learner, 1993)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 기회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 대한 열망과 자존감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60년대까지 ‘최고의 엘리트 집합소’로 일컬어진 언론계 역시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2) 입사과정과 전략적 부서선택과 그 변화

실제 여성언론인이 서울시내 유수대학출신이라는 점은 이들이 언론계에 입문⁷⁾하는 데 있

6) 65년 대학가를 휩쓸었던 한일회담 반대 물결 속에 몇몇 여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던 점을(그치지 않는 열풍, 1965.6.26; 연세대·덕성여대등, 1965.7.1). 감안한다면 글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다.

7) 엘리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채 제도가 자리잡힌 후부터 여성기자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71년 이만갑의 조사에 의하면 “시험을 치러서 입사한 사람은 53명(71.2%)이고 특채된 사람은 21명(28.8%)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채로 입사한 경우가 많아 10여년전의 과거에는 특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이만갑, 1971, 79쪽). 공개채용이 실시되고는 있었지만, 구술자였던 김선주와 성인숙의 경우처럼 신문사의 필요에 의해서 추천을 통해 기자직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공식고용과 비공식 채용의 공존은 신문사 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기 한국 여성고용의 특

어서 중요한 요건이었다. 60년대 초에 입사했던 기자들의 경우 “별다른 준비없이”(이창숙 1차 인터뷰) 신문사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장화를 신고, 괴물같이 하고 지금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일을 하면서”도(윤호미 1차 인터뷰) 기자생활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학력이었다. 서울대 나온 여성들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는 회고는 당시 경영진들에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구할 수 있었던 요건이 무엇이었던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원가족의 언론계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사’ 또는 ‘신사’등 남성의 직업으로 통칭된 기자직에 들어오는 과정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여전히 젠더화된 주체임을 확인받고 이를 극복하는 여정이었다. 65년 조선일보 수습기자로 입사했던 김영신은 “남자도 하기 힘든 데 여자가 뭐 하러 왔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방우영사장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그녀는 자신감있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자직과 자신의 전공인 법학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해보겠다고 답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인 ‘여성’이라는 텃밭을 피해갈 수 있었다. 70년대 입사했던 조남진과 홍은희는 모두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결혼을 해서 상대방이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의 질문에 대해 두 언론인은 “결혼을 위한 결혼을 안하겠다”(조남진 인터뷰) 또는 “결혼해서 직장 그만두라는 남자”를 설득하거나 헤어지겠다(홍은희 인터뷰)는 대답을 했다고 회고하였다. 이들의 대응은 어떤 면에서는 당시 여성지식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대두된 새로운 결혼관의 반영이었다. “현모양처라는 모랄로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두려는 남성들”(진성기, 1971, 140쪽)의 고정관념을 깨고, 호혜평등에 입각한 부부관계,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했던(정세화, 1975.4) 당시 여대생들의 결혼관을 피력함으로써 그들은 여기자의 결혼=퇴직이라는 당시 언론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입사이후 여성언론인들은 성별화된 조직구조 하에서 여성언론인들은 문화부 또는 교정부, 계간지 또는 주간지등에 배치되어 수습기자시절부터 기사 작성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많은 여성언론인의 희망부서가 애초부터 문화부·교정부등 주변부서였거나, 해당 부서로의 배치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윤호미는 수습 이후 지원한 첫 번째 부서가 교정부였고 조남진은 “경쟁이 덜한” 교정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이창숙 역시 “사회부·정치부등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문화부를 1지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치부를 지망했다가 “미친 x”(김춘옥, 1999. 5) 소리를 듣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상황에서 “문화부 기자에 대해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고 이창숙은 회고하였다. 부서배치에 대한 김영신의 회고를 통해 문화부 배치에 대한 여성기자들의 인식과 그 안에 내재된 성별정치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회부나 정치부의 여기자가 얼마 안되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때였어요. 여자 자리야 교정부는 교정부로 뽑으니까, 그렇고 무조건 여자는 조사부나 문화부예요. 아니면 소년조선 같은 데 그런데 보내는 거죠. 문화부가 가장 좋은

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외한다면 문화부 기자들은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떠난 기자사회화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출입기자단도 그 안에서의 기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촌지’, ‘빈번했던 기자단 폐쇄’가 상징하듯 출입기자단이 기자 집단과 정부와의 관계를 일선에서 응축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부 기자들은 상징되는 각종 관행으로부터 일정정도 벗어나 있었다. 특히 5·16직후 공식적인 정보 통로가 막히게 되면서 문화면이 한동안 각사의 특색을 드러내는 지면으로 각광을 받았으며(최일남, 1966. 6), 획일적인 기사 속에서 신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했던 지면”이었다는 점은 역으로 문화면이 권위주의 체제하의 정보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영역¹¹⁾이었음을 시사한다. 문화부 노동이 지닌 이러한 시공간적 특색 때문에 문화부 기자들의 취재기나 회고록에는 일반적인 특종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종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취재원과의 빌고 당기기보다는 가난한 문화집단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해 주요 문화단체를 “키우는 보람”(신우식, 1970. 11. 6) 또는 “좋은 필자의 발굴”(최일남, 1982)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정보가 통제되었던 상황에서, “펜을 든 강패”(남시옥, 1997, 97쪽)라 불릴 정도로 공격적이고 연줄이 중시되는 취재 관행과는 다른 관행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정잡배에서부터 온갖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했던 사회부 기자들과 달리 문화부의 취재원은 당시로서는 적은 수였던 식자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 실제 문화부 기자는 50년대 명동문화로 대표되는 문예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며, 문인들의 다방 공동체에 출입하면서 문인들이 생활해 갈 수 있는 일종의 ‘밥줄’이었다(김시철, 1999). 60년대 중후반 문화면의 문학중심성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60년대 초중반까지 신문의 문화면이 당시로서는 식자층 계층에 속하였던 사람들을 주 취재원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공간적 특색,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관계들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5. 주변성이 부여한 공간과 피할 수 없던 소외

문화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공간적 특색은 “화초처럼 잘 데리고 있다가 시집보내야할 존재”(김선주 인터뷰)였던 여성기자들에게 딱 적합한 부서로 여겨졌다. 한 명의 기자라기보다는 “보호해야할 존재”로 여겨진(김선주 인터뷰) 여성기자들의 문화부 배치는 어떤 면에서 산업화 시기 뉴스생산노동 속에 담지 된 성별분할의 가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이벤트(e.g. 노벨문학상의 수상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특색에 더하여 해당시기 적은 지면 상황은 문화부 여성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주었다. 여기자들이 담당했던 문화면의 여성가정란, 부녀면 기사는 부녀부가 있었던 대한일보를 제외한다면 상당기간동안 일주일에 1회, 70년대 증면과 함께 일주일에 3회~매일로 그 횟수가 증가했을 정도로 전체 신문제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11) 이는 유신체제 말기의 한완상 교수의 특강을 보도했던 신연숙은 해당 기사가 문화면 톱으로 실렸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채 보도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신연숙 인터뷰, 2008. 4. 4)

은 아니었다.¹²⁾ 급하지 않은 마감이었고, 제일 큰 인터뷰 기사가 원고지 7장 정도일 정도로 기사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널 취재 기재 기사에 대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10개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김선주 인터뷰) 끊임없이 일을 생각해야하는 특색에도 불구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문화부 출신 여성언론인의 취재기의 경우는 대개 출입기자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언론인들이 문화부를 비롯하여 출입기자단과는 거리가 먼 부서들(부녀부, 주간부등)을 순환하며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하다. 출입기자단 경험의 부재는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듯하다. 하나는 “일선 기자의 생활무대”라 불릴 정도로 회사를 초월한 중요한 사회화 공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경쟁에서 두드러지는 여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난 여성”을 “정으로 내리치려는 문화”의 외부에 있음으로써, “취재과정에서 겪는 고생이나 불쾌감을 만 부에 비해 훨씬 덜”(이경순, 1969, 106쪽) 겪은 채 기자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취재원이 “시정잡배”가 아니라, 문화계의 지도층, 예술가 및 학생 등 엘리트이거나 여성이었다는 점은 “기자로서 인간적 대접을 잘 받았다”(김영신 1차 인터뷰)는 회고가 함축하듯 타 부서에 비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화부 노동이 가져다 준 편안함은 해당 노동이 지닌 시공간적 특색 외에 조직내 주변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여성기자가 가장 잘 갈 수 있었던 부서”(김영신 인터뷰, 2008. 3. 25)였던 문화부는 남자기자들에게 있어 “샌님이다. 치마를 두른 남자대 내면적이고 정서적이다. 남자가 있을 곳이 못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남성이다. 치마 바람에 맥을 못 쓰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사변적이다”(환, 1969. 1.10)라고 자가 진단이 행해졌던 부서였다. 특히 60년대 여성기자들의 선발은 일정부문 여성독자를 겨냥해 등장·확대된 여성가정란 제작을 위한 조직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최이숙, 2009). 남자기자들이 “여자라 그러는 지 파트가 문화파트라 그러는 지” 본인한테는 경쟁을 느끼지 않았다(김선주 인터뷰)는 여성기자의 평가는 문화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신문사 내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주류의 영역이 아닌 주변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즉 속보, 지면, 승진을 둘러싼 남성들 간의 치열한 경쟁 외부자로 위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자로서의 위치는 동시에 “소극적 특수성을 살리는 제한된 분야에만 관심”(선우휘, 1973, 111쪽) 있는 존재라는 남성들의 규정속에 여성기자를 오래토록 묶어두었다. 정치적 선정주의의 영향으로(장은미, 2007), 국가통제하의 신문기업의 방어적 상업주의 전략(남재일, 2004)하에서 정치-경제-사회부서의 노동이 중시되었던 상황에서, 문화부·부녀부 담당 여성기자들은 해당 분야 노동의 가치 및 자신의 존재위치와 관련된 공세에 직면해야했다. 문화부의 여성·가정란, 부녀부 지면 제작자도 “프레스카드가 나오느냐”, “문화부 기자도 기자냐?”는 질문이 함축하듯, 국가의 통제 상황 속에서도 타사와의 속보 경쟁을 우선시 했던 풍토 속에서 ‘반쪽 기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12) 산업화 시기 신문 지면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62년 10월 23일부터 48면(주당), ▲64년 2월 3일부터 40면, ▲64년 6월 8일부터 36면, ▲64년 8월 3일부터 32면, ▲64년 9월 26일부터 36면, ▲65년 11월 29일부터 28면, ▲65년 12월 17일부터 36면, ▲1970년 48면 ▲1981년 72면 (출처: 정진석, 1969, 73~78)

시·공간,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문화부·여성가정관 노동이 기존의 남성우월적인 젠더 질서 내에 있었다고 해서, 문화부 여기자들이 각종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기자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승진·호봉상의 차별에서 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출산이후 새로 시행된 인사고과에서 밀려 승급상의 차별을 겪었는가 하면(홍은희 인터뷰), 때로는 그만둘 것을 중용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혼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졌는데, 결혼퇴직 이후 6년 만에 합동통신 방송뉴스부 기자로 복귀했던 김영신은 승급에 대해 문제제기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김여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려구 기차를 탔다구 해봐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내 그대로 word by word로 옮기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까 대구나 김천 그쪽이 경치가 좋더라구. 그러면 거기쯤 내려서 직지사도 구경하고 해인사도 구경하고 그러면 안되까?” 그러더라구.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일부러 못 알아들은척 했어. 도중하차 하면 어쩌냐 그런 뜻이야. 여태 다녔으니까 그만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는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안 올려주게 한거야 결국은. 그만두고 기분나빠서 내가 밥을 못먹고, 어려운 집 머느리도 아니니 그만두겠지를 기대하며 안올려 준거예요. 내 짐작이지.

승진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또는 결혼퇴직 등으로 인해 그만두어야 했다고 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언론계에 수습기자제가 시작되면서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들어오는 과정”이 되면서 이전까지 여기저기 옮기던 관행과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윤호미 3차 인터뷰). 수습기수가 “승급·승진 인사에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준거”(정진석, 1992, 48쪽)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직한 여성기자들의 경우 “동기가 없다는 것은 승진에서 누락되는”(김영신 1차 인터뷰) 현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역시 “견습기자 출신들 간의 유대감이라는 게 대단해서 견습 출신 아닌 기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이창숙, 2005, 285쪽)였고, 여성 기자에게 허용되었던 영역이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이직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다.

여성언론인의 소외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여성언론인의 구술과 수필에 근거해볼 때, 남성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제였던 술과 촌지(김경희, 1998) 그리고 지배적 취향 문화였던 담배, 포커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지배적인 취향문화를 남성과 동등히 향유하지 못한 반면,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여성임을 확인받아야했다. “입입이 담배 피워 물며 입입이 농담음담”(이영희, 1978, 184쪽)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만연했던 음담패설 공해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된 자기 존재를 마주해야했다.

산업화 시기 한국언론이 안고 있는 격동의 역사를 응축하는 실천이자 남성적 네트워크의 상징인 술, 촌지 역시 부처 출입의 경험이 거의 없는 여성기자들에게 있어 다소 거리가 먼 실천이었다. 촌지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성기자들에게 더 많은 비판이 가해졌”기 때문에 결벽증적 증세를 보일 정도로(윤호미 1차 인터뷰) 여성기자들은 촌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기자들간의 교류의 장이었던 술자리에서 역시 여성기자들은 완전한 참여자는 아니었다. 물론 여성기자들에게 있어서 술자리 역시 “기자들의 기개를 배우는”(신동식 인터뷰) 그리고 “신문

과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는”(최성자 인터뷰) 학습의 장(場)으로, 또한 친한 정보원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적인 교류를 하는 장으로서 기억된다. 일례로 조선일보 시절을 회상하는 글에서 김선주는 당시 문화계 내에 ‘해프닝의 선구자’였던 정강자 여사가 하는 명동 2층 술집에서(김선주, 2004.3)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지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기자사회 내에서 술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즉 취재원과 또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한국의 술자리가 매우 성애화 된 공간(이상길, 2004)임을 감안할 때, 남성기자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매일 일상적으로 외박으로까지 이어졌던 남성들의 술자리(한국일보 기네스, 1979. 10. 6)와는 달리, 여성기자들의 술자리는 시대별로 그리고 결혼 상태에 따라 여기자가 담당하는 노동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술자리의 차수나 성격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다. 70년대 말에 입사한 기자들에 의하면, 그때까지 “술 마시는 데 여성기자들을 잘 끼워주지 않았고 (중략) 잘 어울리는 선배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으며”(홍은희 인터뷰), 함께 하더라도 여성기자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빠져주길 바랬다”(신연숙 인터뷰)라고 술회하였다.

시공간적 특색, 여성적(또는 주변적) 부서 종사자이자 경쟁의 외부자로서의 위치는 문화부 여성기자들이 언론계 내의 지배적 젠더 질서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들은 신문사 안에서 일정 정도의 편안함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기자가 진정한 기자로 추앙받던 상황에서 ‘반쪽기자’가 주는 편안함이었다. 주변적 부서에서의 자율성이 있었지만, 승진상의 차별, 일상적인 문화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기자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을까?

6. 주변부에서 자기 공간 만들기-여성언론인의 살아남기와 정체성 관리

신문사 내에서 처음부터 주변부서에 배치되었던, 일상적인 문화에서 주변적 존재였던 여성언론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을까? 여성언론인은 기자임과 한 신문사의 사원이었으며, 동시에 중산층 지식인이었고, 한 집안의 딸이었으며, 결혼을 했을 경우 아내이자 엄마였다.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들은 어떠한 이들에게 어떠한 돌파구를 제공해주었을까?

남성적 영역에 진출한 전문직 여성들은 흔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양자로부터 거리두기를 한다고 주장한다(Barret, 2002). 해당기간 동안 여성기자들에게 요구되었던 “남성 못지 않은 실력, 여성다운 부드러움”이라는 것에 대해 당시 여성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1) 즐거움·자부심을 주는 일: 조직·기자공동체로부터의 인정

“여성에게 적합한 부서”에 있었지만, 이들 역시 ‘기자’였다. 기자직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기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Debruine, 2004), 당시 기자들이 인식

한 기자의 사회적 지위는 이들의 직업적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산업화 초기 기자직은 일제 치하 민간지에서부터 이어오는 지식인·계몽자의 위치 즉 사회적 권위를 갖는 “대단한”(박동은 인터뷰) 직업이었고, 한편으로는 舊惡이라고 불릴 만큼(성민선 인터뷰) 그 권위를 활용한 폐해들이 나타났던 직업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언론의 통제가 심화되면서 변화되었다. 그러나, 신문이 지닌 중요성과 여타 직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직종이라는 평가는, 남성적인 터프함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직을 여성들 사이에서 “첨단의 직업”(윤호미, 1993)이자, 최고의 인기직(윤호미 1차 인터뷰)으로 만들어주었다. 신문사 합격당시 “아버지가 황성옛터를 흥얼거리며 돌아다니셨”(김영신 1차 인터뷰)을 정도로 좋아하셨다는 가족의 반응은, 해당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대를 반영한다. 1단 기사 하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평가될 만큼 당시 신문매체가 지닌 사회적 지위는 “기자가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평생 기자해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자직에 대한 인정과 함께, 당시 기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여러 자격과 요건들을 갖추었다는 것은 ‘여성=기자직 부적합자’라는 당시 언론계의 일반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원이었다. 기자 선발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윤호미 2차 인터뷰) 산업화 시기 여성언론인들이 서울의 유수 대학 출신이었다는 점은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인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윤호미는 자신이 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학벌과 그에 기반한 알음알이를 지적하였다.

나의 경우는 학벌이 상당히 학벌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었던 거 같애.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거, 자기들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가 이걸 정말 그거지만 그게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중략) 옛날에는 좀 그게 있었지 않았나. 왜냐면 여기 기자들 대부분이 70-80%가 서울대학출신들이니까.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는 이 사주가 그거에 대한 게 [선호가] 있어서, 경상도 사람이 많고.(중략) 동창이 있으니까. 동창들이 많고, 네트워크이 뭐 도와주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서로 아름아름 아는 거 윤호미가 뭐 대학 때 어쨌다 이런 걸 아는 점이. 그리고 우리 하고 같이 동년배들 아는 사람들이 다 유명하게 되니까 김지하를 비롯해서 그런...(윤호미 2차 인터뷰)

남성과 동등한 학벌은 학력이 중시되던 한국사회에서 여성언론인들이 지닌 일종의 잠재력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남성보다 못한 존재-를 뛰어넘은 존재로 文才를 지닌 이 여성들은 산업화와 함께 여성독자에게 소구코자 했던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화의 도구였다. 67년 후반 한국일보 두 명의 여기자인 정광모·이영희의 세계 일주 취재, 월남전장에 파견된 3명의 여성 기자에 대한 각 사의 홍보는 여성기자를 활용하였던 신문사의 욕구를 방증한다. 이들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은 때로는 여성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녀들 앞에 놓인 ‘여성’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내의 질투어린 시

선을 뒤로하고 70년대 3차례에 걸친 해외 취재를 다녀왔던 중앙일보 수습 1기 윤호미의 합동 취재 이야기는 문화부 및 여성차장의 위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남성우월주의적 시선에 대한 극복 자원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

[분위기가] 다르죠. 우선 그 사람들이 나를 깔보다는 거. 우선 문화부고 여자고 이러니까. 정치·경제·사회부에서는 이러는데, 저, 포지션은 높으니까 어 차장이니까 수습기자들 쪽 내 밑에서 그거를 했는데, 첫 회를 쓰는 데 정말 겁나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아니 늦게 써서 (중략) 국장이랑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냈는데 (중략) 그 첫 기사를 읽는 도중에 저 부장이 나한테 와서 껴안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국장도 너무 좋다고. 그 첫 기사를 가지고 그 합동 취재팀을 늘렸지. 그때 나하고 대학동기가 아래였는데 거기 멤버였어. 자기가 그 멤버 중에서 수석멤버지. 그니까 이게 팀장이 첫 회를 과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걸 보고서 중략 질렸죠 그때 우리 동기생 수석이 나한테 와서 와 윤호

다.

여성기자의 중성화·남성화를 “직업여성의 비극이자 동시에 희극”(선우휘, 1973, 10쪽)으로 비판받았던 상황을 대부분의 여성기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윤호미는 자신은 “이렇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하면서, 여성성을 지키는 것이 일종의 본인에 있어서 “자구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대학교 때 내가 혼련이 되었어요. 남자들이 여자하고 술먹기를 좋아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하더라구.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먹어. 술을 안먹어. (중략) 담배 뭐 이러는거. 그게 남자들이 겉으로는 같이 그러면서 뒤에서는 흥을 보니까, 그걸 안한 게 그게 내 생각은 남자들의 욕을 안 먹기 위한 점이야, 나는 나를 속인거지. (중략) 여기자는 다리 탁~ 책상에 다리 딱 꼬고 사회적인 통념이 담배 딱 피우고 술을 잘먹고 걸걸하고. 활달해 보이는 성격이라, 더군다나 우리는 활달해 보이는 사람이라서 내 성격은 상당히 소심한데 그거에 대한 나의 자구책이었던 거 같애 나를 속이는. 잠재적인 자구책이야. 술담배를 안했어요. 그거는 내 대학교때부터 그. 남녀문제를 절대 바깥에 내본 적이 없어요. (중략) 여태까지 신문사 생활에서 지들이 헛소문을 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스캔들로 이러지는 않았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성녀’라는 별명도 있고, 어, ‘불감증’ 뭐. 뭐, 그것도 나는 좋았어요. 나는. 그거는 내 사생활을 지키는 거에. (윤호미 1차 인터뷰)

남성중심적인 실천들과 거리를 두고 여성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양상은 대부분의 문화부 기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장명수는 사장 취임 후 관훈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스타일이었다면 벌써 기자사회에서 죽어 나갔을”(허남진, 1999. 9)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윤호미와 약 10여년 차이로 입사한 홍은희 역시 “여성을 잘 끼워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술자리 등을 통해 남성기자와 어울리기 보다는 낮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자로서 생존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회고하였다. 그녀는 행동에 있어서 “여자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투적인 모습을 보였을 경우 미리 이렇게 경warn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홍은희 인터뷰). 문화부 기자에게서 발견되는 여성성의 유지 전략은 비단 조직 내의 여러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취재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다. 이형숙(1978. 5. 16)이 회고하듯이 여성기자의 옷차림은 여기자를 ‘기자’이기보다는 ‘여성’으로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었는데, 사회적 저명인사를 접해야하는 문화부의 여성기자들의 경우 옷차림에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의상실에서 옷을 맞춰 입거나(장인석, 1988.1) 이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이창숙 2차 인터뷰). 이러한 모습들은 여성다움의 유지·잘 차려 입음이 그 회사의 이미지와 관련된다고 봤기 해석했는데(김영신 2차 인터뷰), 이는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그 행동이 일정정도 규정된 측면도 존재한다.

전통적인 여성성, 그리고 조용하고 주변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기대에 부응했다고 해서 이들이 남성들이 본인들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행동을 모두 수용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75년 한국일보 31기 수습기자로 입사한 신연숙의 에피소드는 남성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이기 보다는 성애화된 ‘여성’으로 판단받는 것에 대한 여성언론인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때 또 여기자들이 6명 들어오니깐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또 예뻐하기도 하고 “주말에 뭐 사 줄테니까 나와라”, “싫다”고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웃음) 일 이외에는 그런 거 개인적인 거 하시지 말라구 많이 텅기고 이래서 별명이 그때 죽창이었어요. (웃음) 입바른 소리 워낙 잘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선배들이 예뻐, 얼마나 어려워. 20대 대학교 4학년 생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불러서 한국일보 13층으로 오라고 그러면 올라가보면 그 뭐, 저기 뭐 주말에 어디가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시라고 선배가 하실 얘기 다했으면 확 일어나서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하고. (최이숙: 선생님 왜 확 일어나셨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불편해. 그냥 그 선배나 업무관련으로 해서 하면 좋지만 개인적인 관계로 그냥 만나자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는 내가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신연숙 인터뷰)

이는 비단 “여성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기자 부적격자’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코자 했으며, 여성기자들은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자”(이승선, 1998, 265쪽)는 마음가짐으로 여성임을 티내지 않고 일하려고 했다(홍은희 인터뷰)고 회고하였다. 실제 산업화 초기 여성기자들의 임신에피소드는 이를 잘 드러내는 데 여성기자들은 불려오는 배를 코트등으로 가리고 다녔다(신동식, 이창숙 인터뷰). 임신한 여기자에게 보기 불편하니 다른 문으로 출입할 것을 여성부장에게 요구했던 상황에서(송정숙, 2006), 이들은 기자로서 “그녀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임신이 활용될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기자로서의 능력을 폄하하는 ‘여성’다움에 대한 부정은 “여자니까 그렇다”라는 말에 대한 경계로 이어졌다.

내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니까 저렇다는 게 제일 싫어했거든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나는 배격하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노력을 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상대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잘 되려는 입장에서 모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홍은희 인터뷰)

여성적 행동에 대한 긍정 그리고 임신을 비롯하여 기자로서의 능력을 침해하는 또 다른 ‘여성적 행동’에 대한 부정은, 성별화된 뉴스생산노동을 딛고 ‘기자’로서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한 유동적 젠더 정체성 관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들이 지녔던 공적 영역에 대한 열망·직업세계에 대한 강한 열망에 비추어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의 실천은 승진이나 부서배치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유사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2년간의 교정부 생활 끝에 신문기자 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편집국장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한 조남진의 행동, 편집국장을 찾아가 좋은 기자냐라고 묻거나 이에 이의제기한 행위는 부드럽고 다소곳한 당시의 여성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70년대 여성운동의 확산과 함께 여성기자들의 이러한 젠더 연행 전략은 점차 집합적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자 한명이 잘못하면 모두 도매급으로 넘어가기에(홍은희 인터뷰), 그리고 여기서 좌절하면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힌다는 생각 때문에 버텨야한다는 의시기 서서히 자리잡기 했다.

여성기자들에게 ‘여성성’이 갖는 복합적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지배적 젠더 질서에 대한 인정이었다. 가부장적 질서에서 추앙받는 여성적 가치에 대한 선택적 수용을 통해 이들은 여성적·주변 영역기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산업화 시기 문화부 노동이 편집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시공간적 특색은 이러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일정정도 열어주었다. 그리고 서구 여성운동의 도입과 함께 여성들의 집합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모색되는 가운데, 점차 ‘여성’으로서의 집합적 의식 역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현모양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들에게 가족·결혼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7. 가족·결혼이 지니는 그 복잡성

그렇다면 애초부터 현모양처를 꿈꾸지 않고 기자직에 입문했던 이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 오랫동안 여성언론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기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 요인이자 “기자로서의 특유의 약점”(송원영, 1974. 4.1.)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미혼의 여기자인 윤호미는 자신이 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고하였다. 대부분의 여성언론인들은 공식적인 결혼퇴직제의 존재를 차치하고라도,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여성기자에게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기제로 활용되고, 또한 결혼한 여성기자에게 “남자랑 자고 뽀뽀하게 회사에 출근하냐?”(김춘옥, 1999. 5)는 비난이 공공연했던 상황에서, 상당기간동안 여성언론인들이 언론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았다.

치열한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조간신문을 기준으로 이들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정도였다. “결혼 직후 일어난 새색시가 ‘오늘 기획안 뭐 내지’”를 걱정할 정도로(이창숙 2차 인터뷰) 퇴근이후에도 지속되는 기획의 압력 속에서 문화부 여성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자신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가사노동·육아등 가정 내 복지를 모두 여성에게 맡겼던 당시의 상황에서(김수영, 2000)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부분을 식모 노동에 의지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 쉬거나(이창숙, 2005)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6년여의 휴지기(김영신 1차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60년대 초중반에 입사한 여성기자들의 경우, 기자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시를 대표하는 문화부 기자인 윤호미 역시 “40까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다”고 회고하였고, 결혼퇴직제가 존재했던 김영신 역시 기자직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결혼 안하신 여기자들이]있긴 있는데, 회사에서 조직에서 보면, 결혼을 안한 사람에, 이 건 Broken English, 콩글리쉬지만 올드미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社 내 외를 막론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그렇게 결혼 않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할만큼 그 직업에 매력을 못느꼈죠. 왜 그러냐하면은 다른 데 갈 데는 없으니까 기자가 최선은 최선이지만 사법시험을 [논외로] 두고 보면 이게 최선이지만, 이게 차선택이었잖아요. 차선택이지만, 내가 선택한 거 중에서 최고로 좋았던 거죠. 그러나 막 다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부 별로 생각 못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기자에 대한 무슨 천도의 직업이라던가 그 생각을 못했던 거 같아요. 좋기는 한데 내가 결혼을 하면은 퇴직을 해야된다는 내가 불문율에 내가 역행을 하면서 가야될 만큼, 지금 그렇게 능력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나중에 차츰 생각을 해서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김영신 2차 인터뷰)

결혼이 절대시 되었던 시기에 결혼이 여성기자에게 일종의 “보호막”(신동식 인터뷰, 2008. 3. 17)의 의미가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들이 내릴 수 있었던 선택지였다. 결혼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선택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부터였다.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중시했던 상황에서 당시 여성언론인들은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식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식모 노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였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문제는 식모가 바뀔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탁아소를 알아볼 정도로 여기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이창숙 2차 인터뷰). 80년대 들어서면서 식모노동이 파출부나 친정부모와 같은 친족자원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¹³⁾ 외에 가정일·육아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와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혼이 절대적인 시기에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대외활동은 가정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맹광호, 1971. 9, 155쪽)에서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각종 어려움을 뒤로 한 채 기자직을 유지해갈 수 있었을까? 문화부 기자는 아니지만, 체육부 기자였고 80년대 말 늦게 결혼했던 성인숙은 시골출신이었었던 자신이 오랫동안 ‘올드미스’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이제 결혼을 안했지만 잡이 확실했기 때문에, 잡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 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가서 차는 안타는 커피 타는 이런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용인이, '재는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 그게 도움은 되었던 거 같애. 다른 직업보다 신문 기자였던 게 조금 excuse의. 또 뭐 선배 중에 아는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 직업은 저런 가보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지 뭐 이런 식의. 그런...(성인숙 인터뷰, 2008. 7. 10)

13) 이는 70년대 언론계에 진출한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조남진은 시어머니가, 홍은희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최성자 역시 친척들을 통해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80년 임신 상태에서 해직되었던 신연숙의 경우, 해직이후 잠시 쉬게 되면서 일정정도 해결한 면이 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풀무원의 사보제작 그리고 88년 한겨레 창간 이후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녀 역시 육아의 문제를 파출부 아줌마와 친족관계를 통해 해결하였다.

기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족구성원들의 이해가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는 결혼한 부분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동종업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 언론직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쉬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김영신은 남편이 미국 유학을 했던 교수였기 때문에 언론계로의 복귀이후 일찍 출근하는 자신을 대신해 육아를 도와주었다고 회고하였다(김영신 2차 인터뷰). 홍은희는 “남의 돈을 버는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킴으로써 시댁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홍은희 인터뷰).

여성에게 있어 결혼, 육아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기자직에 진출한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은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의 이해와 지원 및 다른 여성의 노동(e.g. 식모노동, 시댁 및 친정 어머니의 도움)에 의지함으로써 난관을 헤쳐갈 수 밖에 없었다.

나아가며

사회적으로 특히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주변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 기간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족자원으로부터 소외받은 자이자 가족자원의 제공자로서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남성에 비해 교육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지니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 중산층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시집을 오랫동안 시집을 가기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자로서 활약했던 여성들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서울 유수대학을 나온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권위를 지녔던 신문사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모두, 당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예상(expectation)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남성의 영역이자 사회의 모든 면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여겨진 뉴스생산노동에서 문화재 취재를 제외한 문화면 노동은 상당기간동안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그만둘 것으로 여겨졌던 여성기자들이 가기에 노동의 시간구성 및 공간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한 부서였다. 또한 이는 여성기자들을 남성들 간의 경쟁의 외부자로 위치지움으로써 뉴스생산노동 및 당시 사회를 관통하는 남성우위의 젠더질서를 유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여성기자의 문화부 배치는 상당기간동안 남녀기자들 모두에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산업화 초기 여성기자들의 경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화부를 비롯한 주변적 부서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주변부가 부여한 약간의 편안함이 유교적 가부장적 질서가 면면에 흐르고 있던 당시 언론계 및 사회의 성차별적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음을 의미치는 않는다. 문화부로의 배치가 주는 편안함은 지배적 젠더 구조의 유지가 주는 편안함, 즉 주변적 위치의 수용이 주는 편안함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일상생활 및 공식적인 회사의 정책(승진, 퇴직등)에 의해 남성과 동등

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했다.

이러한 소외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행위의 공간을 만들었을까? 이 글에서 발견된 부분은 두가지였다. 여성언론인들은 당시 기자직이 요구했던 자원들-학벌, 실력등-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젠더 위치 내에 자신을 위치지움으로써 직업적 자존감을 유지코자 하였다. 시기를 초월해 나타났던 이러한 양상들은 기실 그 모습은 동일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의식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겉보기에 ‘남성못지 않은 실력과 여성다운 부드러움’을 유지하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요구를 시기를 불문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70년대 진출한 여성기자들의 경우 이는 “어렵게 열은 문을 닫지 않기 위한”(조남진 인터뷰)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보다는 ‘일’에 우선권을 부여한 이들의 선택과 자신들 앞에 놓여있던 현실인식은 단순히 여성성과 기자다움간의 대립 또는 양자택일로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는가의 문제는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살아남기가 민주화 이후 사회변동과 맞물리면서 90년대 여성 고위직 바람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자·이준우·이종석·이종석(1977). 문화부를 말한다. 『신문과 방송』, 1977년 1월, 32~39
- 강현두 (1998). 현대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강현두 編.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
- 김경희(1998). 뉴스생산과정에서의 여성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4권 1호, 145~183.
- 김수영 (2000).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가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주 (1978). 1년생 병아리. 여기자클럽 編. 『여기자』 (31~35). 서울: 세대문고사.
- 김시철 (1999). 『격랑과 낭만: 《自由文學》과 명동 <동방싸롱> 이야기』. 서울: 청아출판사
- 김춘옥 (1999.5). 4월호 특집 여기자들 읽고. 『신문과 방송』, 341호, 89~93.
- 남시옥 (1997). 『체험적 기자론』. 서울: 나남
- 대한 YWCA 연합회 프로그램 연구부 (1971). 『여성 경제활동 및 취업 - 경제활동인구, 취업 상황, 전략직종』. 서울: 대한 YWCA 연합회.
- 맹광호 (1971. 9). 배급가치관의 정도. 『여성동아』, 155~157.
- 박용규 (1997). 일제하 여기자의 직업의식과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1호, 5~40.
- 박현서 (1967). 『화려한 숲의 대화-박현서 수필집』. 서울: 여원사.
- 선우휘 (1973). 여성저널 4호 발간에 부쳐-나의 작은 불만과 기대. 『여성저널』, 4호, 8~11.
- 송원영 (1974. 4. 1). 기자가 된 딸에게-2대 아버지의 염원. 『한국일보 사보』,
- 신연숙(1978. 4. 17). 여기자에도 부의 개방을. 『한국일보 사보』, 3.
- 신우식(1970. 11.6). 보람 있었던 순간. 『기자협회보』.
- 심영환 (1976. 1). 시류에 따라 변한 문화면. 『신문평론』, 39~47.
- 유강환 (1972). 문화면의 취재와 편집 『신문평론』, 72년 가을, 16~21
- 유선영 (2002). 『여성과 언론: 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중앙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유선영·김경희 (2003). 미디어 기업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윤석민·이철주 (2003). 지상과 방송사 조직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지위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 학보』, 22호, 167~210.
- 윤호미 (1993). 박현서. 대한 언론인회 編 『언론인물사화-기사발길 헤쳐온 선인들의 발자취: 8·15後編(下)』. 서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 이경순(1969). 제왕과 나부랭이. 『여성저널』, 1호, 106~107.
- 이규태 (1966). 문화면기능의 고찰 / 그 현황과 시대적고찰 및 외국과의 비교연구. 『신문평론』, 12~18.
- 이상길 (2004). 일상적 의례로서 한국의 술자리-하나의 문화적해석. 『미디어·젠더&문화』, 1호., 39~78.
- 이승선(1998). 중앙일간지 최초 여자주필 장명수-부드러운 글 속에 날카로움 번뜩이는 경력 35년 대기자. 『여성동아』, 262~265.

- 이영희 (1978b). 한국 남기자공. 여기자클럽 編. 『여기자』 (184~186). 서울: 세대문고사.
- 이창숙 (2005). 우리는 왜 법에만 매달렸을까...아쉽지만 그것이 최선이였다. 한국일보 ‘74노조 출판위원회 編 『1974년 겨울-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투쟁사 1974~1981』 (274~287). 서울: 미디어잡.
- 이형숙(1978. 5. 16). 여기자광장-여기자는 데카당하다는데- 『한국일보 사보』 , 3.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 39집, 3호 , 120~148.
- 장은미 (2007). 「1950년대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적 재공간화 과정」 .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인석 (1988.1). ‘여성동아대상’ 수상자 인터뷰, 언론인 장명수-펜한자루로 시대의 아픔 같이 나눠. 『여성동아』 , 222~225.
- 정봉화 (1970). 취재론 그 요령과 문제점-문화면 기사. 『신문평론』 , 1970년 여름, 11~15.
- 정진석 (1969). 증면은 불가능한가? 『저널리즘』 가을, 73~78.
- 정진석 (1992). 인물로 본 한국 언론 100년-언론사관생 수습기자. 『신문과 방송』 , 256호, 42~52.
- 조경희 (2004). 『언제나 새길을 밝고 힘차게-조경희 자서전』 . 서울: 정우사.
- 진성기 (1971. 9). 가정과 탈가정. 『여성동아』 , 1971년 9월호, 138~141
- 최이숙 (2009). 산업화 시기 성별화된 언론노동시장과 여성언론인의 경력이동.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33~160.
- 최일남 (1966. 6). 문화면 제작의 실제와 방향. 『신문평론』 , 66년 여름호, 18~24.
- 최일남 (1962). 문화면의 기능과 과제. 『신문연구』 , 1962년 봄호, 82~86.
- 최일남 (1982). 문화부장 20년. 『신문연구』 , 82년 여름호, 162~172.
- 한국일보 기네스-술과 야근에 비례하는 외박 (1979.10.6). 『한국일보 사보』 , 2.
- 허명숙 (2006). 여기자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연구: 전북지역 여기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권 4호, 364~401.
- 환(1969. 1. 10). 문화부 출입처-지인 다다익선. 외근부도 내근부도 아닌...남보다 여가 많은 세계. 『한국일보』 , 4.
- Alvesson, M, Ashcraft, K and Thomas, R (2008) Identity matters: reflections on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scholarship in organization studies. *Organization*, 15 (1): 5~28
- Barrett, F. J. (2002). Gender strategies of women professionals: The case of the US navy. In M. Dent & S.Whitehead (eds). *Managing professional identities-Knowledge, performativity and the new professional* (pp.157~173). London: Routledge
- Bruni, A. & Gherardi, S. (2002). Omega's story: The heterogeneous engineering of a gendered professional self. In M. Dent & S.Whitehead (eds). *Managing professional identities-Knowledge, performativity and the new professional* (pp.174~198). London: Routledge
- Chamber, C., L. Steiner & C. Flemining, C. (2004). *Women and Journalism*. London: Routledge.
- Chamber, C., L. Steiner & C. Flemining, C. (2004). *Women and Journalism*. London:

Routledge.

- DeBruine & K. Ross, eds (2004). *Gender and Newsroom Culture: Identities at Work*. Creskill, NJ: Hampton Press.
- DeBruine (2004). Organizational, professional and gender identities—Overlapping, Coinciding and Contradicting Realities in Caribbean Media Practices. in DeBruine & K. Ross, eds (2004). *Gender and Newsroom Culture: Identities at Work*, (pp.1~16). Creskill, NJ: Hampton Press.
- DeBruine, M (2000), 'Gender, Organizational and Professional Identities in Journalism', *Journalism, Theory, Practice and Criticism*, 1(2), pp217-238.
- Han, JL & Ling. H. M. (1998)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 53-78
- Joseph, A. (2004). The Gender (dis)advantage in Indian print media, in M. DeBruine & K. Ross (eds.) *Gender and Newsroom Culture: Identities at Work* (pp.164~180). Creskill, NJ: Hampton Press
- Kvande, E. (1999). 'In the Belly of the Beast': Constructing femininities in engineering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6(3), 305-328
- Lachover, E.(2005). The Gendered and Sexualized Relationship Between Israeli Women Journalists and Their Male News Sources. *Journalism*, vol.6(3), pp. 291-311.
- Lee, S.(2001)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Mary C. Brinton (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umsden, Linda(1995), "You're a Tough Guy, Mary— And A First-Rate Newspaperman": Gender and women journalists in the 1920-1930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4), pp913-921.
- Melin-Higgins, M.(2004). Coping with journalism: Gendered newsroom culture. De Bruin, M. & K. Ross (eds). *Gender and News Room Culture, -Identity at Work* (pp.197~222). NJ: Hampton Press.
- Melin-Higgins, M., & Djerf-Pierre, M.(1998, July). Newswriting in newsrooms: Journalists and gender cultur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IAMCR),Glasgow
- Mumby, D. K. & Ashcraft, K. L. (2006).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and gendered Organization: A Response to Martin and Collinson. *Gender, Work & Organization* 13 (1), 68~90.
- Pedely, M.(1997). The Marginal Majority: Women War Correspondents in Salvadoran Press Corps Association(SPCA).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4, pp.49~76.
- Robinson, G.J. (2004). Gender in the Newsroom: Canadian Experiences, in M. DeBruine & K. Ross (eds.) *Gender and Newsroom Culture: Identities at Work*, (pp.181~196). Creskill, NJ: Hampton Press
- Ross, K. (2001), Women at Work: journalism as engendered-practice, *Journalism studies*, 2(4), 2001 pp531-544
- Ross, K.(2004). Sex at Work: Gender Politics and Newsroom Culture. in M. DeBruine &

- K. Ross (eds.) *Gender and Newsroom Culture: Identities at Work*, (pp.145~162_,
Cresskill, NJ: Hampton Press
- Salminen-Karlsson, M. (2006). Situating gender in situated learning. *Management*, 22
- Sevón (2005). Timing Motherhood: Experiencing and narrating the choice to become
a mother. *Feminism & Psychology*. 15(5). 461~482.
- Trethewey, A. (2001). Reproducing and Resisting the Master Narrative of Decline:
Midlife Professional Women's Experience of Aging. *Human Relations*, 15 (2),
183~226.
- van Zoonen, L.(1994). Media Production and the Encoding of Gender, in *Feminist
Media Studies* (pp. 43~65). London; Sage Publication